

치 사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신행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선목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 성과와 과제'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의지를 심어주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문화포교, 나눔의 실천 등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사회와 국민들에게 실현하고 있는 신행 단체가 바로 108산사 순례 기도회라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이 땅에 평화와 평등,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에 앞장서 왔고, 부처님의 진리를 펼치며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넘어 이웃종교까지 모범이 되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사상을 가장 잘 실천하는 단체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력은 부처님 탄생성지 룬비니동산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구법순례의 길을 따라 한반도에 이운하여 평화를 기원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다리를 놓고 있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08산사순례기도회가 108산사를 찾아 성지순례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농촌, 산촌, 어촌의 지역민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사찰주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8선목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108인연 맺기, 선목 108호행상 시상, 군 장병에 간식거리 제공, 약사여래 108보시금 지급 등 108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선목혜자 스님의 원력과 회원들 한분 한분의 신심이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난 결과일 것입니다.

금강의 서원과 불퇴전의 용기로 정진하는 108산사순례기도 회원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불법홍포의 새장을 열어 자비로운 나눔을 통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되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8산사순례기도회의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함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 두 번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108산사순례기도회의 그 동안의 전법행과 신심을 다지는 일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모자람이 있으나 교계의 명성 높으신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토론이 펼쳐질 만큼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발제와 토론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도선사 주지이시며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목혜자 스님과 회원여러분, 청담문도회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세미나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 법과 종단을 위하는 향심을 되새겨 보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2013) 9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